

# 韓國 商業 · 流通地理學의 研究動向과 課題

韓 柱 成 \*

## 目 次

- |                   |                           |
|-------------------|---------------------------|
| 1. 序 論            | 4) 商業地域에 관한 연구            |
| 2. 商業 · 流通地理學의 발달 | 5) 都 · 小賣業에 관한 연구         |
| 3. 年次別 연구동향       | 6) 상품별 流通에 관한 연구          |
| 4. 內容別 연구동향       | 7) 소비자 행동에 관한 연구          |
| 1) 理論연구           | 8) 역사 · 문화지리적 연구          |
| 2) 流通機關에 관한 연구    | 5. 韓國 商業 · 流通地理學의 問題點과 課題 |
| 3) 流通施設에 관한 연구    |                           |

## 1. 序 論

商業이란 용어는 중국 商(殷)나라 시대에 나뉜 셈이 발명됨으로써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상업 중에서 固有의 상업은 생산자와 소비자 사이에 개재해서 財貨의 이전을 매개하는 영리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補助商은 고유의 상행위를 보조하는 것으로 상행위의 仲介, 仲買, 代理 등과 이외에 상품의 수송, 창고위탁, 보험 및 은행거래 등을 말한다.

流通이란 고유의 商과 補助商의 대부분의 내용을 포함하는 것으로 마케팅과 같은 개념으로 사용된다.<sup>1)</sup>

한국은 1962년 제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실시 이후 공업발달에 의한 고도 경제성장으로 국민 총생산의 증대와 더불어 생산 · 소비구조의 변화를 가져왔다. 즉, 1968~1986년 사이의 공업생

산액은 약 120배(1968년 769,077백만원)가 증가하였으며, 도 · 소매업의 판매액은 약 91배(1968년 541,064백만원) 증가하였다. 그리고 상품 流通機關도 종래 영세한 가족 경영형태에서 회사조직의 都賣業者, 代理店 등에 의한 경영형태로 변화하였으며 流通團地, 슈퍼마켓, 자동 · 통신판매 등의 등장과 슈퍼마켓과 백화점의 多店舖의 지역적 전개가 이룩되고 있다.

이와 같은 流通革新과 더불어 지리학에 있어서의 商業 · 流通 분야의 연구가 축적되어 종래의 연구에 대한 研究動向과 그 研究課題도 파악할 시기에 왔다고 본다. 따라서 본 연구는 한국 상업 · 유통지리학의 연구동향과 그 과제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本稿에 있어서 상업 · 유통지리학의 연구대상 범위는 그간 발표된 내용을 基幹으로 하여 理論 연구, 流通機關에 관한 연구, 流通施設에 관한 연구, 商業地域에 관한 연구, 都 · 小賣業에 관한 연구, 상품별 流通에 관한 연구, 소비자 행동에

\* 忠北大學校 地理教育科 副教授

1) 田島義博編, 1977, 流通讀本, 東洋經濟, 東京, pp. 16~17.

관한 연구와 發達史的 측면에서 역사·문화지리적 연구를 첨가하여 8가지 측면에서 고찰하기로 한다. 본 연구에 있어 논문선정은 지리학 전공자로서 전문학술지 또는 대학논문집에 발표한 논문(학사논문은 제외)과 대학원 석사논문 이상으로 한국인의 연구성과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성과의 분석 대상년도는 상업·유통지리학의 관계논문이 최초로 발표된 1966년부터 1989년까지의 24년간이다.

이하, 제2장에서는 商業·流通地理學의 발달, 제3장에서는 年次別 연구동향을, 제4장에서는 內容別 연구동향을, 제5장에서는 한국의 商業·流通地理學 연구의 問題點과 課題를 밝히기로 한다.

## 2. 商業·流通地理學의 발달

중세 때 사용된 상업지리학이란 용어는 경제지리학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이전에 경제지리학의 의미로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1778년 J.C.Büsch에 의해 처음 불리워졌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용하는 상업지리학의 내용은 1930년대 후반부터 1940년대에 걸쳐 歐美諸國의 도시지리학 연구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리고 유통지리학이란 용어는 1930년 R.O.Eastman·J.Klein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으며<sup>2)</sup> 이 때부터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졌다.

국내외의 상품이동, 상권, 상업지역, 상업입지 등을 주요한 연구대상으로 한 상업지리학은 경제지리학 혹은 도시지리학의 일부분으로써 19세기 후반부터 오늘날까지 착실하게 발전해 왔다. 그 내용은 당초의 상업무역, 상업교육에 필요한 지리적 지식의 집적에서 실증적인 분석에 의한 기

술·설명 혹은 해석으로, 더 나아가 모델이나 定量化에 의한 이론적 연구로 진전되었다.<sup>3)</sup>

1920년대 말기에서 1930년대 전기까지의 상업·유통지리학은 생산지향의 마케팅 활동에서 나타난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리적 지식의 필요성이 증대됨으로써 출현하였기 때문에, 그 특질은 시장개척과 그 확대에 대한 중요한 지리적 인자를 조사하는 것, 기업활동의 여러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지리적 분석이 중요하여 이에 기여한 것이었다.

1930년대 후반에는 消費者를 중심으로 한 연구가 등장하였으며, 또 기업중심의 管理的 마케팅(management marketing)이 급속히 성장하였다. 이 때에 대표적인 연구자가 W.Applebaum<sup>4)</sup>으로, 그는 유통지리학을 경제지리학의 分派로 보고 실천과학으로써 기업입지의 연구와 기업의 업무수행과 관계되는 모든 활동을 예측하는 분야라고 하였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중기까지는 상업·유통지리학이 경제지리학의 한 부분이 아니고, 독자 학문으로 발달하기 시작하였다.<sup>5)</sup> 즉, 소매업의 상점 입지분석, 시장조사와 그 技法, 시장의 특징 등의 연구가 행해졌다.

1960년대 말기에는 사회적 접근방법(social approach)이 B.J.L.Berry<sup>6)</sup>, D.A.Revzan<sup>7)</sup> 등에 의해 이룩되었는데, Berry는 상업·유통지리학의 이론과 실천을 결합시킬 필요성을 강조하고 또 기술과 과학성과의 관련을 중시해서 상업·유통지리학을 보다 광범위하고 보다 실증적인 연구와 이론적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다. 특히, 소매업의 사례연구와 중심지이론의 재평가를 시도하였다. Revzan은 상업·유통지리학이 지역성에 바탕을 두고 연구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1970년 중기이후 오늘날까지 상업·유통지리

2) Eastman, R.O. and Klein, J., 1930, *Marketing geography*, Alexander Hamilton, New York.

3) 佐藤俊雄, 1984, "マーケティング" 地理學の 動向と課題, 地理誌叢 第25卷, 第1號, pp. 5-26.

4) Applebaum, W., 1954, "Marketing geography", James, P.E. and Jones, C.F. eds., *American geography; inventory and perspective*, Syracuse Univ. Press, Syracuse, pp. 245-251.

5) Murphy, R.E., 1961, "Marketing geography comes of age", *Econ. Geogr.*, Vol. 37 (issue).

6) Berry, B.J.L., 1967, *Geography of market centers and retail distribution*, Prentice-Hall, New Jersey.

7) Revzan, D.A., 1968, *A geography of marketing; integrative statement*, Univ. of California, Berkeley.

학은 개념을 보다 넓혀 사회적 마아케팅<sup>8)</sup>(social marketing)을 확립시켰고 연구분야도 분화되어 소매업 중심의 연구<sup>9)</sup>, 도매업 중심의 연구<sup>10)</sup>, 소매업 연구에서 소비자 행동연구가 행해지게 되었다. 또 상업·유통지리학의 체계화를 시도한 연구<sup>11)</sup>도 제시되었다. 그리고 脫工業化 사회, 서비스경제화 사회, 정보사회, 가치다원화 사회 혹은 성숙사회, 소프트(soft)사회 라고 불리우는 현대에 있어 상업·유통지리학은 총체적이고 거시적인 연구 뿐만 아니라 미시적인 연구 등이 대두되었는데 이들 연구의 선구자는 A.Dawson<sup>12)</sup>, B.J.Epstein·E.Schell<sup>13)</sup> 등이다.

### 3. 年次別 연구동향

한국의 商業·流通地理學의 연구는 1966년에 그 연구성과가 발표되기 시작하여 타 지리학 분야보다도 그 역사가 짧은 것이 특색이다. 시기별, 분야별 상업·유통지리학의 연구성과를 보면 表1과 같다.

1989년까지 발표된 상업·유통지리학 관계의 논문수는 모두 78편으로 1980년대 전반기에 가장 많았으며 1960년대 후반기에 가장 적었다. 또 1980년대에 流通施設에 관한 연구가 35편으로 가장 많아 상업·유통지리학 관계 총논문수의 44.9%를 차지하고 있다.

## 4. 內容別 연구동향

본 장에서는 한국의 상업·유통지리학 연구동향을 이룬, 유통기관, 유통시설, 상업지역, 도·소매업, 상품별 유통, 소비자 행동, 역사·문화 지리의 분야로 나누어 詳述하기로 한다.

### 1) 理論연구

상업·유통지리학 관계 78편의 연구성과 중 이론분야는 2편이다. 이 중 상업지리학의 분야별 연구동향을 商圈, 시장, 流通機關으로써의 도·소매업의 입지, 상점가로 나누어 개괄적으로 고찰한 崔錫珍의 연구<sup>14)</sup>가 있다. 이 연구는 商圈 연구에 있어 W.J.Reilly의 小賣引力法則<sup>15)</sup>과 D.L.Huff의 商圈 確率모델<sup>16)</sup>에 관한 연구, 定期市에 관한 연구동향 등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 다음으로 시장권에 관한 이론적 연구로써 柳旺烈의 연구<sup>17)</sup>가 있다. 그는 H.Hotelling의 모델에 대한 음미와 그 확대적용을 목적으로 시장의 공간 경쟁의 일반적 양상을 규명하려고 하였다.

### 2) 流通機關에 관한 연구

유통기관이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짓는 것으로 都·小賣기관, 창고업, 운수업 등의 物的 유통기관과 도로, 항만 등의 기타 유통기관으로

8) 기업적 유통활동을 관리적 마아케팅이라고 하면, 사회적 마아케팅은 사회 각 流通機構의 유통현상을 의미한다 (田島義博編, 前掲書, p.19).

9) Davies, R.L., 1976, *Marketing geography; with special reference to retailing*, Methuen, London.

10) Vance, J.E.Jr., 1970, *The merchant's world; the geography of wholesaling*, Prentice-Hall, New Jersey

11) Mulvihill, D.F. and Mulvihill, R.C., 1970, *Geography, marketing and urban growth*, Van Nostrand Reinhold, New York.

12) Dawson, A., 1982, *Commercial distribution in Europe*, Croom Helm, London.

13) Epstein, B.J. and Schell, E., 1982, "Marketing geography; problems and prospects", Frazier J.W.ed., *Applied geography; selected perspectives*, Prentice-Hall, New Jersey, pp. 263-282.

14) 崔錫珍, 1985, "商業地理學 研究 序說", 東國地理, 第6號, pp. 27-39.

15) Reilly, W.J., 1931, *The law of retail gravitation*, Knickerbocker Press, New York.

16) Huff, D.L., 1963, "A probabilistic analysis of shopping center trade areas", *Land Economics*, Vol. 39, pp. 81-90.

17) 柳旺烈, 1985, "市場圈의 空間競爭", 臨海地域 開發研究, 第4輯, pp. 171-188.

분류된다.<sup>18)</sup> 우리 나라에 있어 유통기관에 관한 연구는 슈퍼마켓, 쇼핑센터, 路店商의 소매기관에 대한 것 뿐이다. 먼저 슈퍼마켓의 연구로써 成俊鏞<sup>19)</sup>은 企業家 採擇型刷新의 擴散연구로 슈퍼마켓을 대상으로 하여 그 확산과정과 그 요인을 밝혀 한국의 도시체계의 특징을 밝혔다. 즉 슈퍼마켓의 확산은 도시의 인구규모가 크고 경제적 기반이 견고할수록 그 채용년도가 빠르며 전통적인 성격이 강한 소도시로써 경제적 기반이 약하며 생산연령층의 인구가 적은 도시는 쇠신에 대한 저항이 강해 채용년도가 늦으며 그 보급율도 낮다는 것을 밝혔다. 또 슈퍼마켓의 공간적 확산은 수도 서울을 시작으로 제2계층(부산·대구)으로 계층적 확산을 한 후 제3·4계층의 도시로 동시에 계층·인접확산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밝혔다. 쇼핑센터에 관한 연구로는 張殷任<sup>20)</sup>과 李喜演<sup>21)</sup>의 연구를 들 수 있다. 張殷任은 서울시의 4개 쇼핑센터를 대상으로 소비자의 選好요인과 소비자의 사회·경제적 속성에 따른 쇼핑센터의 계층을 구분하였다. 즉, 쇼핑센터의 선호에 작용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거주지와 쇼핑센터간의 거리요인이나 도심에 입지한 쇼핑센터의 경우에는 거리요인보다 서비스의 시설, 상품의 질과 다양성이 작용한다고 밝혔다. 소비자의 사회·경제적 속성과 이용 쇼핑센터간의 관계는 구매습관과 이동거리와는 거의 관계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도심쇼핑센터의 경우 소비자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계층의 이용율이 높다는 점을 밝혔다. 李喜演의 연구는 우리 나라 도시에 있어 쇼핑센터의 확산요인을 수익성에 의한 경제적인 면과 상호작용에 의한 정보를 중시하는 사회적인 면으로 나누어 인구와 거리에 의한 회귀방정식으로 각각 확산요인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경제성 확산과 상호작용에 의한 확산의 모델의 통합을 주장하면서도 각각을 定式化하고 있다.

다음으로 非公式 부문으로써의 路店商의 입지

적 공간특성과 그 발달과정을 밝힌 南善女의 연구<sup>22)</sup>가 있다. 그는 수원시에 노점상이 밀집해 있는 7개 지역을 대상으로 노점상의 분포와 발달과정, 노점상의 경제적 특성을 밝혔다. 첫째, 사람통행이 많은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발달한 노점상은 시장주변에 발달한 경우 시장의 일부로 인식되어 시장의 형성 및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나 도로변의 노점상은 일반상점 혹은 상가로 흡수되기 위해서는 개인자본의 축적에 의해서만 가능하게 된다. 둘째, 노점상의 입지이동은 이동·반이동에서 고정형으로 정착되며, 1일 입지이동은 극히 적으며 그 이동도 매우 소극적이다. 셋째, 노점상은 非加工 식료품을 판매하며 영업시간이 길고, 불규칙적인 소매기능을 취하고, 식료품은 수원시에서 구입하고 공산품의 대부분은 서울에서 구입한다. 넷째, 노점상인은 서울과 수원시, 이들 인접지역에서 유입된 인구로 유입의 규모는 유입지역과의 거리, 도시 규모에 의해 결정된다. 다섯째, 노점상인은 비교적 최근에 유입된 이주자가 많으며 경제적 동기에 의해 가구단위로 유입된다. 그리고 성별로 보아 여성이 많으며, 연령적으로는 30~60세의 연령층으로 학력수준이 낮다. 여섯째, 노점상을 하게 된 동기는 경제적 이유에서이며, 노동공간은 거주공간 가까이에 입지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 3) 流通施設에 관한 연구

유통시설에 관한 연구는 定期市, 常設市, 商店街로 나누어 기술하기로 한다.

#### (1) 定期市

한국의 정기시에 관한 연구는 크게 ① 이론적 연구, ② 입지와 市場圈, ③ 정기시의 변천, ④ 기능분포, ⑤ 계층 구조, ⑥ 상인과 소비자 행동,

18) 田島義博編, 前掲書, pp. 73-93.

19) 成俊鏞, 1982, "韓國諸都市におけるスーパーマーケットの擴散", 地理科學, 第37卷, pp. 127-140.

20) 張殷任, 1984, "서울시 쇼핑센터에 관한 地理學的 考察", 梨花女子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論文(未刊行).

21) 李喜演, 1984, "都市體系를 통한 刷新의 擴散", 地理學論叢, 第11號, pp. 21-37.

22) 南善女, "水原市 路店商에 관한 地理學的 研究",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碩士論文(未刊行).

⑦ 특수시장에 관한 연구로 나눌 수 있다.

① 이론적 연구

이론적 연구로써 먼저 田京淑의 一連의 연구<sup>23)</sup>를 들 수 있다. 그는 정기시에 관한 국내외의 종래 연구를 고찰한 후 연구대상으로 지역적 차원의 연구는 국지적인 정기시와 근대적인 상업시설이 혼재된 지역을 선정하여 연구할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정기시체계 및 그 변용에 대하여서는 정기시체계와 혼합체계로 나누고, 혼합체계는 다시 정기시체계가 중심지체계의 요소보다 강할 경우를 정기시적 혼합체계라 하고, 중심지체계의 요소가 정기시체계의 요소보다 우세할 경우는 도시적 혼합체계로 구분 짓고, 충북을 사례로 하여 중심지체계의 발달을 파악하였는데, 정기시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 생활수준의 향상과 버스교통의 발달이 중심지체계의 변화를 가져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② 입지와 市場圈

정기시의 입지와 시장권에 대한 연구로는 李中雨의 一連의 연구<sup>24)</sup>와 李正煥·盧陽柱의 연구<sup>25)</sup>를 들 수 있다. 李中雨는 경북과 강원도의 시·군별 정기시와 상설시의 분포를 河系別, 高度別, 交通로와 인구분포와의 관계에 의해 시장의 입지를 파악하였고, 정기시의 開市日은 도로와 지형에 영향을 받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경북의 정기시 시장권은 농기구 등 5개 상품을 선정하여 상인에 의한 도매권을 파악한 결과 3개의 상권이 존재한다고 밝히고, 이 중 대구상권이 最上位圈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李正煥·盧陽柱는 울산시·울주군을 연구지역으로 하여 정기시의 성쇠에 영향을 미친 것은 역사적 사건, 교통로의 발달, 상업화와 도시화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라고 주장하고, 정기시의 기능은 後背地의

성격에 의해 나타나며 開市·閉市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하였다. 또 일반정기시와 가축시의 시장권을 비교한 결과 특수시인 가축시의 시장권이 일반 정기시보다 廣域이란 점을 밝혔다.

③ 정기시의 변천

정기시의 변천에 관한 연구로는 田京淑<sup>26)</sup>, 李宰夏의 연구<sup>27)</sup>를 들 수 있다. 田京淑은 1938~1980년 사이의 충북의 정기시 수와 그 기능적 변용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충북 정기시의 변용에 대하여 정기시의 감소는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의한 생활수준의 향상과 상품작물 재배, 교통기관의 개선, 상위 중심지의 기능 강화 등에 의해 나타났다고 밝히고 있다. 李宰夏는 한국 정기시의 변화과정(발달, 쇠퇴, 존속)을 근대화 이론에 의해 軍威郡을 사례로 하여 밝혔다. 그러나 정기시의 변화를 초래한 근대화 과정에 있어 정기시의 계층구조, 이동상인의 이동행로에 대한 분석이 없으며 농업의 기계화, 여가시간의 증대가 정기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는 의문점으로 남아 있다.

④ 기능분포

다음으로 정기시의 기능분포에 대한 金基赫의 연구<sup>28)</sup>는 부산시에 존재하는 정기시인 龜浦市와 오시계市를 대상으로 그 입지기반과 역할·기능을 밝혔다. 즉, 그는 도시의 정기시는 상설시와 달리 저품질·저가격 상품을 취급하고 또 약재·家禽類를 판매하고, 판매상품의 공간적 분화가 나타나며 농촌적 분위기를 갖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경제적 요인에 비하여 사회·문화적 기능이 미미하게 작용한다는 점도 밝혔다. 그러나 다른 대도시에 존재하는 정기시와의 비교연구와 도시 주변지역의 지역성·역사성의 차이에 따른 정기시의 존립여부도 함께 밝혔으면 한다.

23) 田京淑, 1982, “定期市の研究に關する小論”, 地理誌叢, 第23號, pp. 21-32.

田京淑, 1983, “定期市 시스템 및 그 變容에 관한 研究”, 地理學報, 第5號, pp. 52-62.

24) 李中雨, 1968, “慶尙北道에 있어서 市場聚落의 分布와 그 商圈”,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論文(未刊行).

李中雨, 1970, “江原道の 市場分布”, 慶北大學校 教育大學院 論文集, 第1輯, pp. 17-51.

25) 李正煥·盧陽柱, 1984, “蔚山地方의 定期市場 研究”, 地理學研究, 第9輯, pp. 377-390.

26) 田京淑, 1982, “韓國における 定期市”, 東書地理, 第14號, pp. 4-5.

27) 李宰夏, 1988, “韓國의 定期市場 變遷過程”, 慶北大學校 大學院 博士論文(未刊行).

28) 金基赫, 1987, “大都市 定期市場 機能 研究:釜山市內 定期市를 中心으로”, 地理學論叢, 第14號, pp. 381-398.

### ⑤ 계층구조

정기시에 의한 계층구조를 파악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먼저 李賢英<sup>29)</sup>은 충청·전라·경상도를 연구지역으로 하여 정기시의 수·밀도의 변화, 공간적 배열과 계층구조를 분석하였다. 1938년 정기시의 연간거래액에 의한 정기시의 계층구분은 小市場, 中間市場, 地方中心市場으로 나누었고, Thiesse 多角形法<sup>30)</sup>에 의해 시장망의 형태를 밝혔으며 Christaller의 시장원리의 존재여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정기시의 數的 변화에 따른 시장망의 계층구조를 시계열적으로 파악하여 연구 대상지역의 공간구조 변화를 규명하였으면 하는 점이 있다.

道단위로 정기시의 계층구조를 밝힌 것은 朴英治<sup>31)</sup>, 田京淑의 연구를 들 수 있다. 朴英治은 경기도의 정기시를 대상으로 하여 정기시 수의 증감과 開市日의 기능수와 사업체수에 의한 계층구분을 하고 大市場과 小市場으로 나누어 각 시장에 대한 기능에 대하여 밝혔다. 그리고 규모가 큰 정기시의 경우는 다양한 기능을 가져 발달하는 데 대하여 소규모의 정기시는 서울의 영향으로 약화 내지 소멸해 가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田京淑의 연구는 충북을 연구지역으로 하여 1940년, 1955년, 1965년, 1980년에 식료품, 고급품 구매행동 등에 의해 중심지의 계층구조를 밝혔다.

계층구조에 관한 국지적인 연구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柳佑益의 연구<sup>32)</sup>는 尙州郡을 대상지역으로 하여 정기시의 시·공간적 분포와 계층구조를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중심시장, 중

급시장, 소시장으로 3계층 구분하고 각 계층의 시장권을 Thiessen 多角形法에 의해 획정하였다. 그러나 계층구분에 있어 시장권의 크기 뿐만 아니라 정기시의 업종수와 구성 등 다양한 지표에 의해 구분할 필요성이 있었다. 李顯旭의 연구<sup>34)</sup>는 康津·海南郡을 대상으로 정기시의 시·공간적 분포와 기능에 따른 계층구조의 파악을 목적으로 분석한 결과, 市의 공간적 분포는 수요력 증대에 따른 인접시장간의 경쟁을 최소화하기 위해 開市週期를 중복하지 않게 開市하고 있다는 Skinner의 주장을 입증하였다. 또, 정기시의 1계층과 2계층간에는 행정원리가, 2계층과 3계층간에는 시장원리가 존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기시의 기능에 있어 거래되고 있는 상품에 대한 고찰과 계층간에 존재하는 행정·시장원리의 존재에 대한 파악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심지 체계를 파악하기 위해 정기시를 연구한 것으로는 森川 洋·成俊鏞의 一連의 연구<sup>35)</sup>가 있다. 1982년의 연구는 公州·靑陽郡을 연구지역으로 하여 정기시 분포와 성쇠, 규모와 특성을 밝히고 9개 상품·서비스에 대한 구매권을 설정하여 계층구분을 하고 그 특색을 밝혔다. 그 결과, 3계층의 존재가 확인되었고 중심지에 있어 정기시의 역할이 생활필수품의 분배와 농축산물의 集荷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밝히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즉, 농업인구의 감소, 농축산물의 출하체계가 정비되면서 정기시는 저차 중심지부터 쇠퇴하게 된다고 지적하고 일본이 경험한 바와 같은 고차 중심지의 발전과 농촌으로의 상업침투가 조장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또

29) 李賢英, 1974, “韓國 定期市場의 變遷과 空間構造”, 首都女子師範大學 論文集, 第6輯, pp. 267-285.

30) Thiessen. A.H., 1911, “Precipitation averages for large areas”, *Monthly Weather Review*, Vol. 39, pp. 1082-1084.

31) 朴英治, 1974, “京畿道 定期市場에 관한 地理學的 研究; 變遷과 空間構造”,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碩士論文(未刊行).

32) 田京淑, 1982, “韓國忠清北道地域 における生活圏および定期市の變容に關する研究”, *地理學評論*, 第55卷, pp. 292-312.

33) 柳佑益, 1972, “韓國의 定期市場에 關한 地理學的 研究; 中心地 階層構造를 中心으로”, *駱山地理*, 第2號, pp. 1-14.

34) 李顯旭, 1982, “定期市場에 關한 地理學的 研究; 康津·海南郡을 中心으로”, 全南大學校 大學院 碩士論文(未刊行).

35) 森川 洋·成俊鏞, 1982, “韓國忠清南道公州附近の 中心地システムと定期市”, *地理學 評論*, 第55卷, pp. 757-778.  
Morikawa, H. and Sung, J.Y., 1985, “Central places and periodic markets in the southeastern part of the surrounding area of Seoul”, *Geographical Review of Japan*, Vol., 58(B), pp. 95-114.

Morikawa Sung의 연구는 利川·陰城郡을 연구 대상지역으로 하여 정기시의 성쇠와 재화·서비스권을 규명한 결과, 한국 농촌 중심지는 저차중심지로서 오래 존속해 왔으나 최근 10년간 정기시의 이용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또 폐시된 후에도 서비스시설이 설치되어 새로운 중심지체계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인구유출이 증가하고 또 주민의 생활권도 확대되어 정기시나 저차 중심지는 장래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扶餘·舒川郡을 연구지역으로 하여 정기시의 계층구조를 밝힌 趙南崗의 연구<sup>36)</sup>는 각 정기시에 대한 W.K.D.Davies<sup>37)</sup>의 기능지수와 점포수, 시장권에 의한 계층구분을 한 결과, 중심시장, 중급시장, 소시장의 3계층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들 계층간의 관계를 K 값에 의해 밝혔다. 또 상위계층 중심지에 기능 집적현상이 뚜렷하여 하위계층 중심지의 쇠퇴현상이 나타나며, 또 상위계층 중심지는 상설점포와 이동점포가 공존하는 근대적 서비스 중심지로 변모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 ⑥ 상인과 소비자 행동

먼저 S.Y.Park의 연구<sup>38)</sup>는 충남을 연구지역으로 하여 이동상인의 市場循環(market cycle)의 변화가 1925년 당시는 정기시를 이동해 다니는 巡廻行商人(itinerant trader)의 이동패턴이었으나 1975년에는 移動商人(travelling merchant)이 집에서 매일 정기시를 방문하는 이동패턴으로 변화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상인은 결국 특정 정기시에 상설점포의 상인으로 존립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인의 이동패턴의 변화는 교통의 발달, 경제·상업규모의 확대에서

나타난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또 首都圈을 연구지역으로 하여 정기시 분포와 그 변화 및 상인의 특성을 고찰한 白寅基의 연구<sup>39)</sup>가 있다. 그는 수도권의 정기시의 數的 변화와 開市體系의 특성을 밝히고 또 이동상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거주, 이동성격 등을 밝혔다. 그 결과, 상인의 학력은 낮고 상인이 된 동기는 친지의 권유에 의하며, 거주지에서 매일 정기시를 방문하는 사업가로서 자기 소유의 트럭에 의한 이동상인이 대부분이라는 점을 밝혔다. 그리고 거주지는 대부분 읍이상의 도시에 거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도의 시·군별 정기시의 각종 특성 즉, 판매상품, 판매액 등의 비교고찰이 필요하다고 본다. 다음으로 朴在淑의 연구<sup>40)</sup>는 정기시의 상인과 이용자에 관한 연구로, 淸道郡 청도읍의 정기시 이용자는 청도읍 거주자가 가장 많고, 이용자의 대부분은 30~40대의 여자이며, 이용하는 교통수단은 버스이며 화폐로 물건을 구입한다고 하여 정기시 이용자의 속성 파악에 중점을 두었다. 다음으로 J.Lee의 연구<sup>41)</sup>는 軍威郡 정기시 이용자의 이용형태를 시간지리학적 관점에서 파악한 것으로 정기시의 방문빈도·동기, 정기시장 도착·출발시간, 머무는 시간, 시간대별 경제·비경제 활동의 분석을 통하여 소비자의 일상적인 정기시 이용형태를 보다 명료하게 시간적으로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가를 제시하였다.

#### ⑦ 특수시장

특수시장에 관한 연구로 먼저 金在珖<sup>42)</sup>의 牛市場에 관한 것이 있다. 그는 한국 가축시장의 발달과정과 유통구조 및 公州·靑陽·鳥致院·論山을 중심으로 한 가축시장의 시장권의 구조와

36) 趙南崗, 1984, "韓國 定期市の 階層構造와 機能에 關한 研究", 長安地理, 第1號, pp. 76-92.

37) Davies, W.K.D., 1967, "Centrality and the central place hierarchy", *Urban Studies*, Vol. 4, pp. 61-79.

38) Park, S.Y., 1981, "Rural development in Korea; the role of periodic markets", *Econ. Geogr.*, Vol. 57, pp. 113-126.

39) 白寅基, 1987, "首都圈 定期市場에 關한 地理學的 研究; 定期市場 分布의 變換과 定期市場 商人의 特性을 中心으로", 서울大學校 大學院 碩士論文(未刊行).

40) 朴在淑, 1984, "淸道 定期市場의 盛衰와 住民의 空間行動", 曉星女子大學校 大學院 碩士論文(未刊行).

41) Lee, J., 1987, "Temporal and spatial analysis on the consumers' behavior in periodic market of rural Korea. 地理學論究, 第8號, pp. 89-101.

42) 金在珖, 1982, "우리나라 牛市場의 機能과 市場圈; 地理的 接近", 公州師範大學 論文集, 第20輯, pp. 307-321.

金在珖, 1983, "韓國家畜市場의 機能と市場圈", 東北地理, 第35卷, pp. 99-109.

변화를 고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가축시장은 產地 중심시장, 搬出市場, 대소비시장의 3단계가 존재하는 데, 최근 고속도로의 발달 등에 의해 產地市場에서 소비지로 直送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중간시장으로써의 반출시장의 역할이 쇠퇴하였다. 둘째, 읍 규모의 集牛圈은 확대한 반면에 면 단위의 소규모 가축시장은 읍 규모의 가축시장에 고객을 빼앗겨 대부분 폐지 또는 쇠퇴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읍 규모의 가축시장 확대는 도로조건이 좋아져 트럭수송에 의한 시장출하가 가능해져 거래가 유리한 상위시장에 출하하기 때문이다. 또 정부의 축산물 유통의 근대화정책에 의한 1郡 1家畜시장 정책의 실시도 그 영향을 받았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대구 藥令市에 관한 연구로써 吳世昌<sup>43)</sup>, 趙鏞憲의 연구<sup>44)</sup>가 있다. 吳世昌은 대구 藥令市の 변천과 지역 형성과정과 현재의 특성을 밝혔다. 그러나 정기시가 특수시으로써 갖고 있는 구매·판매지역의 형성과정, 전국 약령시와의 관계와 서양의 大市<sup>45)</sup>(fairs)의 관점에서 약령시를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또 趙鏞憲의 연구는 대구시 南城路에 분포한 한약종상의 역사적 배경과 그 분포, 한약종상의 경영자 속성, 규모, 약재 구입경로, 구입·판매권, 한약종상의 쇠퇴원인에 대해서 밝히고 있다.

## (2) 常設市

먼저 소매시장의 분포패턴을 분석하여 상업적 공간구조를 통하여 서울시 내부구조를 파악한 李鳳姬의 연구<sup>46)</sup>를 들 수 있다. 그는 시장의 규모와 地價에 의해 서울시의 시장을 4계층으로 구분하

였으며, 시장의 분포패턴 분석에서 시장은 집중패턴을, 슈퍼마켓은 랜덤패턴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시장규모와 중심지 이론과를 결부지은 것은 너무 형식적인 비교인 것 같다. 또 서울 평화시장을 연구한 李淳鎬<sup>47)</sup>는 평화시장의 의류 단일시장으로 형성하게 된 원인규명과 상가의 입체 및 평면상의 상점분포, 전문화 정도 및 경영실태를 파악하고, 상가의 입지변동과 상가에 입지하고 있는 加工施設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평화시장은 1960년대초 자연발생적으로 발달하였으며 1960년대말에 상공업 기능의 발생, 1970년대 후반의 상공업 및 거주기능이 포함된 종합의류상가로 발달하였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리고 의류 도매기능이 전문화되었으며 상품 구입·판매지역은 서울과 경상도 지역이며 자동차로 수송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상가는 높은 임대료·地價, 판로 개척난, 장소의 협소 등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접근성, 건물의 임대용이, 선전효과 등의 지역 선호조건을 갖고 있다고 지적하여 평화시장의 입지론적 제문제를 파악하고 있다.

다음으로 시장권에 대한 연구로는 朴炳守<sup>48)</sup>와 吳世昌의 연구<sup>49)</sup>를 들 수 있다. 朴炳守는 대구시 서구의 8개 시장을 대상으로 시장의 분포와 규모, 시장의 세력권, 세력권의 형성과 그 요인, 시장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구조 등을 통한 지역성을 규명하였다. 그 결과 시장은 便宜財의 구성비가 높고, 시장세력권은 小賣引力法則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혔다. 또 吳世昌은 대구시 동부에 입지한 상설시장에 대한 세력권을 고찰하였다. 위 두 연구는 도시내부에 있어서의 시장상권이

43) 吳世昌, 1983, “大邱藥令市の 地理學的 考察; 大邱市 南城路를 中心으로”, 社會文化研究, 第2輯, pp. 171-185.

44) 趙鏞憲, 1985, “大邱藥令市の 地理學的 研究; 南城路 漢藥種商을 中心으로”, 慶北大學校教育大學院 碩士論文(未刊行).

45) Allix, A., 1922, “The geography of fairs; illustrated by old world examples”, *The Geographical Review*, Vol. 12, pp. 532-569.

46) 李鳳姬, 1979, “大都市 市場 空間組織에 관한 研究”,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碩士論文(未刊行).

47) 李淳鎬, 1987, “都市內部的 商工業 機能에 관한 研究; 平和市場을 中心으로”, 東國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論文(未刊行).

48) 朴炳守, 1979, “住宅地域 常設市場圈 競合에 관한 經濟地理學的 研究; 大邱市 西區地域을 中心으로”, 建國大學校 大學院 論文集, 第9輯, pp. 319-336.

49) 吳世昌, 1981, “常設市場圈 競合에 관한 經濟地理學的 研究; 大邱市 東部地域을 中心으로”, 韓國社會事業大學 論文集, 第11輯, pp. 119-135.



Reilly의 소매인력법칙에 의한 설명보다는 Huff의 상권확률모델에 의한 분석의 타당성을 검토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상설시장에 대한 生態學的 접근방법의 연구로써 朴贊石의 연구<sup>50)</sup>를 들 수 있다. 그는 재래시장인 대구시 칠성시장을 대상으로 이 시장이 구성하고 있는 농산물시장, 상가, 노점상간의 생태적 관계와 거래품목을 파악한 결과, 상가와 노점상간에는 共生의 관계가 존재하며, 노점상은 고객을 끌어주는 역할을 하여 칠성시장의 성쇠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즉, 칠성시장내의 상인간의 관계를 하나의 생태계로 파악하였다.

### (3) 商店街

먼저 상점가에 대한 연구동향을 밝힌 金元經의 연구<sup>51)</sup>는 상점가의 정의, 상점가 연구에 있어서의 효율성 및 생태학적 접근방법, 상점가의 절대적 입지선정에 대한 종래의 이론을 정리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로는 먼저 邢基柱<sup>52)</sup>, 成俊鏞<sup>53)</sup>, 金鎮澈<sup>54)</sup>, 鄭璋鎬·崔珍植<sup>55)</sup>의 연구를 들 수 있다. 이들 연구는 그 대상지역을 각각 대구시, 대전시, 전주시, 춘천시로 하여 상가별 가옥분포율, 상업적 건물률, 상점 정면길이율, 상점분포율, 층수율에 의해 상가지역을 정하고 14개의 업종구성의 集散性에 따라 CBD hard core, 1차 상점가, 2차상점가, CBD edge, 近隣쇼핑가로 상점가의 類型分布를 파악하였다. 다만 鄭璋鎬·崔珍植의 연구에서는 商號의 언어景觀이 첨가되었을 정도

의 차이이다. 위 연구는 외국도시 내지 국내의 다른 도시와 비교분석할 필요성이 요망된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상점가에 대한 金元經의 一連의 연구<sup>56)</sup>를 들 수 있다. 그의 1971년 연구는 대구시 중심상점가의 1,017개 상점을 대상으로 하여 街路別 업종구성과 업종별 분포, 업종별 重心이동을 밝혀, 도심상점가의 지역분화는 도시의 인구규모, 교통량, 地價에 의해 이룩된다고 주장하였다. 1975년과 1979년의 연구는 대구시 東城路와 부산시 光復洞·南浦洞의 중심상점가를 대상으로 이들 지역의 토지이용과 기능구조, 기업의 입지와 공간과의 관계, 변화가로서의 특성, 중심상점가에 대한 주민의 知覺과 행동을 고찰하였다. 이들 중심상점가는 쇼핑·위락기능, 현대적 무드 기능이 상존하는 지역으로 설명하여 중심상점가에 대한 현상 기술적인 연구를 하었다고 하겠다. 1983년의 연구는 부산시 22개 상점가의 9개 기능의 구성에 의해 상점가를 5계층(CBD 부도심, 지역쇼핑가, 공동체쇼핑가, 근린쇼핑가, 특수쇼핑가)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1984년의 연구는 부산시의 22개 상점가에 대한 地價, 照明度 분포와 리듬, 보행자 통행량과 그 형태 등의 변화가 특성에 의해 7계층(CBD, 부도심, 지역쇼핑가, 공동체쇼핑가, 근린쇼핑가, 국지쇼핑가, 특수기능쇼핑가)으로 구분하여 1983년의 계층구분을 보다 세분화하였다. 그러나 1983년과 1984년의 연구에 있어 각 상점가간의 관련성에 의한 지역구조는 파악하

50) 朴贊石, 1985, "傳統市場의 生態學的 接近", 竹坡洪淳完教授 華甲記念論文集, pp. 325-348.  
 Park, C.S., 1985, "The role of traditional market", 地域研究, 第1卷, pp. 85-99.  
 51) 金元經, 1986, "都市 商店街의 研究動向", 釜山女子大學 論文集, 第21輯, pp. 371-405.  
 52) 邢基柱, 1966, "大邱市 中心商街의 構造와 分化", 只山先生 華甲記念論文集, pp. 225-247.  
 53) 成俊鏞, 1971, "大田市 中心商街의 構造", 公州師範大學 論文集, 第9輯, pp. 191-210.  
 54) 金鎮澈, 1976, "全州市 都心商街의 構造에 關한 研究", 地理學과 地理教育, 第6輯, pp. 29-50.  
 55) 鄭璋鎬·崔珍植, 1981, "春川市 中心商街의 地理學的 研究", 江原文化研究, 創刊號, pp. 53-68.  
 56) 金元經, 1971, "大邱市 都心商街의 立地 動向",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論文(未刊行).  
 金元經, 1975, "大邱市 中心商店街의 地理學的 研究; 東城路를 中心으로", 慶北大學校教育大學院碩士論文(未刊行).  
 金元經, 1979, "釜山市 中心商店街의 地理學的 研究(Ⅰ); 光復洞 및 南浦洞의 土地利用와 繁華街의 特性", 釜山女子大學 論文集, 第7輯, pp. 255-284.  
 金元經, 1983, "釜山市 內部的 階層構造에 關한 研究(Ⅰ); 主要 商街의 土地利用을 中心으로", 釜山女子大學 論文集, 第14輯, pp. 379-442.  
 金元經, 1984, "釜山市 內部的 階層構造; 主要 商店街의 繁華街의 特性을 中心으로", 釜山女子大學 論文集, 第17輯, pp. 379-473.  
 金元經, 1987, "大都市 商店街의 階層構造", 慶北大學校 大學院 博士 論文(未刊行).

지 않았다. 1987년의 연구는 부산시를 대상으로 하여 대도시 내부의 상점가의 계층구조와 그 유형을 밝혔다. 분석결과, 토지이용, 기능, 地價, 景觀, 보행자 행태에 의해 부산시의 상점가를 6계층으로 구분하였으며, 이와 같은 계층구분을 결정짓는 요인은 여자통행량이라고 밝히고 있다.

다음으로 서울시 중심상점가인 명동을 연구지역으로 하여 상점가의 발달과 공간이용, 후배지의 사회·경제적 상황의 변화와의 관계를 규명한 河陽熙의 연구<sup>57)</sup>는 다음과 같다. 이 지역의 상점가는 5시기에 걸쳐 발달하였으며, 중심상점가로 발달하기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입지역제, 토지이용의 전문화, 도심재개발 때 중심상점가로서의 快適性(amenity) 향상, 주차장 확보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심상점가의 기능별 지역분화의 분석이 미흡하였다. 다음으로 서울시 중심상점가 중 종로를 연구지역으로 분석한 金應洙의 연구<sup>58)</sup>는 종로1가에서 6가까지의 간선도로변의 상점가 형성과정과 토지이용, CBD 기능, 기능·업종·층별 구성을 파악하였다. 상가의 형성은 조선시대부터 라고 하였으나 그 후 시기별로 이 지역의 상가 형성과정은 분석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수원시의 중심상가를 분석한 崔基樺의 연구<sup>59)</sup>는 수원시 14개동의 상가를 대상으로 地價에 의한 중심상점가를 설정하고 동별·구역별 업종구성의 입지분화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그 결과, 최고地價 지점을 중심으로 한 인접 핵심부에 은행 등 고차서비스 기능과 귀금속상, 양복·양장점이 입지하고 있으며, 이에 인접한 간선도로변에는 양복점·양품점, 각종 서비스기능이 입지하며, 기계·기계부품점과 건재상은 미분화 상태로 국지적인 입지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부도심의 상점가 연구로써 崔錫珍의 一連의 연구<sup>60)</sup>가 있다. 1982년의 연구는 서울 영등포지구의 지상·지하상가의 기능분화와 공간이용을 규명한 것으로, 상점가 형성에는 공업지구의 발전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하였으며, 전문화된 고급상가 및 고층건물은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의류와 양품을 중심으로 한 대중용품점이 널리 산재입지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배후지와 관계 있는 기계·공구·철물 및 건축자재, 화공약품상의 집적현상도 밝혔다. 1986년의 연구는 서울 부도심인 新村 상점가의 공간적 분포패턴을 파악하기 위해 街路別, 기능별, 건물층별 기능분포의 특성을 분석하여 梨大와 延大에 이르는 街路는 選買品 판매기능이 매우 많고, 그 이외의 街路는 업종별 분포의 특성이 뚜렷하지 않다고 밝히고 있다. 또 기능별로 보아 요식업 기능과 選買品 판매기능의 지역차가 나타나고, 층별 기능구성에서 입체적인 기능분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시대별 상점가의 변화를 지적하면서 시대별 업종분포의 차이 등은 밝히지 않았다. 1988년의 연구는 서울의 부도심 신촌의 상점가가 지하철이 개통되기 이전(1984년)과 그 후 1986년에 어떻게 변화하였는가를 8개 街路別로 파악하였다. 그 결과, 업종별 분화 및 전문화 현상이 나타난 점과, 양식점과 의류점에 대해 線形最近隣分析을 한 결과 랜덤 분포패턴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그러나 街路別 기능체 분포패턴의 변화와 그 요인의 설명이 결여되어 있다.

다음으로 지하상가에 대한 盧鳳玉과 洪淳厚的 연구가 있다.<sup>61)</sup> 盧鳳玉의 연구는 서울시 지하상가의 발달과 기능별·구역별 구조와 판매기능의 전문화를 파악한 후 지하상가의 규모가 클수록 판매기능이 다양하다는 점, 기능상으로 의류와 양품,

57) 河陽熙, 1984, “서울 中心 商店街의 構造; 明洞을 중심으로”, 高麗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論文(未刊行).

58) 金應洙, 1987, “서울 中心 商店街의 形成과 構造; 鐘路의 경우”, 高麗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論文(未刊行).

59) 崔基樺, 1978, “中心商街의 地價分布와 機能構成; 水原을 事例로”, 地理學研究, 第4輯, pp. 66-88.

60) 崔錫珍, 1982, “副心地區의 商街構造에 關한 研究; 서울 永登浦의 경우”, 高麗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論文(未刊行).

崔錫珍, 1986, “서울 新村地域의 商街研究”, 東國地理, 第7號, pp. 1-17.

崔錫珍, 1988, “商街構造의 變化와 線形最近隣分析 研究; 서울 新村地域의 商街를 中心으로”, 地理學研究, 第13輯, pp. 1-16.

61) 盧鳳玉, 1985, “서울市 地下商街의 構造와 機能에 關한 地理學的 考察”, 地理學研究, 第10輯, pp. 109-128.

選買品 판매기능이 탁월하며 지하상가별로 판매 기능이 전문화되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洪淳厚의 연구<sup>62)</sup>는 서울시 지하상가의 형성과 분포, 지하상가의 업종별 변화를 1983년과 1988년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업종구성 변화에서 섬유·의복·신발류의 업종이 5% 감소하였으나 전체적으로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지하상가의 업종이 세분화·다양화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또 지하상가별로 전문화가 이루어졌다고 하였는데 업종별 전문화의 변화를 유형화하여 지역적 분포 패턴을 파악하였으면 한다.

#### 4) 商業地域에 관한 연구

상업지역에 관한 연구로는 먼저 金仁·金基赫의 연구<sup>63)</sup>가 있다. 이들은 서울시를 대상으로 대도시 상업의 지역구조와 地代이론에 의한 업종분포를 실증적으로 연구하였는데, 서울시의 상업지역은 5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업지역 지역분화의 원리와 계층간의 관계는 파악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일제하의 서울 상업과 그 특징에 의한 상업지역의 유형분포를 밝힌 元學喜의 연구<sup>64)</sup>는 1936년 京城府의 182개 町·洞을 대상으로 27개 업종의 상점수에 의해 상업유형의 지역화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 핵심상업구, 도심시장 상업구, 준핵심 상업지, 도심 주변 상업지, 도시간선 沿線 상업지,역상업지, 커뮤니티·近隣商業地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밝혔다. 또 李玉熙의 연구<sup>65)</sup>는 상업활동의 분포특성과 소비자의 구매형태 분석을 통하여 울산시에 핵심 상업지역과 제2의 상업지역, 국지적 쇼

핑센터가 분포하고 있다고 밝혔다.

#### 5) 都·小賣業에 관한 연구

먼저 1967년 한국의 도시를 대상으로 도·소매업의 특성을 밝힌 朴杉沃의 연구<sup>66)</sup>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경제적 중요도를 측정하기 위한 intensity rating 과 입지계수에 의해 도시 도·소매업의 특색, 특히 특수상업도시에 대한 설명을 강조하여 한국 도시의 상업적 성격을 충분히 파악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柳旺烈의 一連의 연구<sup>67)</sup>가 있다. 1979년의 연구는 1976년 우리나라 도시의 도·소매업을 대상으로 朴杉沃의 연구와 같이 intensity rating 과 입지계수에 의해 도시의 계층구분을 하였다. 또 1984년의 연구는 1976·1979·1982년을 대상으로 하여 각 도시의 특화업종을 밝혔다. 다음으로 1971년과 1979년을 대상으로 하여 한국 도시의 상업성격과 지역구조의 변화를 고찰한 徐贊基·朴泰和의 연구<sup>68)</sup>는 도·소매업의 입지계수와 인구규모에 의해 도시를 유형화하였다. 그러나 도매업의 업종변화에 따른 고찰과 유형화 변화의 원인을 규명하지 않았다.

#### 6) 상품별 流通에 관한 연구

먼저 花卉의 유통에 관한 연구로는 李東潤의 연구<sup>69)</sup>를 들 수 있다. 이 연구는 서울시, 안양, 白馬場의 화훼재배 입지조건과 화훼유통에 관한 유형을 밝혔다. 화훼재배는 분재중심의 인접지역(10 km 이내), 花木과 관상수 중심의 주변지역(15

62) 洪淳厚, 1988, “서울 地下商街의 形成과 變化, 高麗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論文(未刊行).

63) 金仁·金基赫, 1981, “서울 商業地域 空間組織에 관한 研究,” 國土計劃, 第16卷, 第2號, pp. 26-41.

64) 元學喜, 1988, “京城府의 都市構造, 商業의 分布와 地域類型을 中心으로,” 地理學叢, 第16號, pp. 53-64.

65) 李玉熙, 1983, “蔚山市 商業地域의 空間構造와 購買行態에 대한 研究,” 石泉 李燦博士 華甲記念論集刊行委編, 地理學的 課題와 接近方法, pp. 302-315.

66) 朴杉沃, 1972, “韓國 都市 商業構造의 地域의 分析,” 駱山地理, 第2號, pp. 61-69.

67) 柳旺烈, 1979, “韓國 都市의 商業構造에 관한 研究,” 東國大學校 大學院 碩士論文(未刊行).

柳旺烈, 1984, “都市와 商業開發,” 都市問題, 第9卷, 第6號, pp. 8-21.

68) 徐贊基·朴泰和, 1983, “韓國 都市의 商業機能과 그 變化; 都賣業의 境遇,” 慶北大學校 師範大學 教育研究誌, 第25輯, pp. 43-64.

69) 李東潤, 1970, “서울 近郊地域의 花卉栽培에 對한 立地와 花卉商品의 流通類型에 對한 研究,” 서울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論文(未刊行).

km 이내), 切花 중심의 외곽지대(25 km 이내)로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그 유통은 시장과 행상에 의해 이룩되었으며, 또 화훼 도·소매점의 입지를 밝히고 있어 화훼의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지역간 결합에 대한 연구가 부족하였다. 다음으로 사과와 유통에 관한 韓柱成의 연구<sup>70)</sup>가 있다. 1974년의 연구는 대구시를 중심으로 한 6개 시·군의 사과 주요 생산지를 대상으로 사과의 出荷방법과 수송방법, 출하방법에 따른 출하지역과 그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속도로 개통 후 사과의 출하지역은 거리제약을 거의 받지 않아 출하지역의 重心이 주요 소비지인 서울 방향으로 이동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1985년의 연구는 사과의 搬出入의 지역적 분포와 유통의 공간적 형태를 파악하여 사과산지로써의 반출지와 대도시 반출지를 구분하였으며, 대도시 반출지는 先取轉送量에 의해 형성된 것이라는 점을 밝히고 있다. 그리고 반입량은 소비량에 의한다고 하였다. 또 사과 總流動에서 서울은 廣域的 반입과 廣域的 轉送을, 대구는 국지적 반입과 전국적 轉送, 釜山·大田은 국지적 반입과 국지적 轉送으로 나타나 주요 산지에서의 지역적 반출이 한국의 사과유통의 공간적 형태를 결정짓는다고 하였다. 다음으로 감귤의 생산과 유통에 관한 邢基柱의 연구<sup>71)</sup>는 감귤의 생산과 유통현황을 파악한 것이다. 또 쌀 유통에 관한 韓柱成의 연구<sup>72)</sup>는 1976년 우리나라 시·군별 쌀 유통량과 정부미와 自由流通米의 구성비 분포와, 자유유통미의 지역간 유통형태를 쌀 잉여·부족지역과 관련지워 설명한 것이다.

다음으로 공산물 유통에 관한 韓柱成의 一連의 연구<sup>73)</sup>가 있다. 먼저 1985년의 시멘트유통에 관한 연구는 시멘트의 物的流通을 유통기관별로 분석

하여 물적유통의 지역간 결합에 의한 지역구조와 그 메카니즘을 밝히고 있다. 즉, 시멘트공장의 지역적 전개와 내륙·임해공장, 分工場의 지역별 出荷量, 레미콘 공업의 분포와 수요지역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공장입지와 거리의 의한 지역구조를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콘크리트 가공공장의 입지와 그 수요지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다음으로 1988년의 석유제품 유통에 관한 연구는 한국 5대 정유메이커의 석유제품별 유통경로와 석유 貯油所의 입지와 搬入地, 메이커 直販에 의한 重油의 판매지역, 대리점의 분포와 메이커별 대리점의 판매량, 충청도 대리점의 석유제품별 판매지역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연료유 판매의 공간적 형태는 메이커의 물적 유통시설의 배치에 의해 결정되지만 이들 대기업의 물적 유통시설은 지형, 교통, 수요량을 고려해서 배치된 것이고, 대리점의 판매지역은 물적 유통시설의 배치와 깊은 관계가 있다는 점을 밝혔다. 다음으로 1988년 家電製品 판매망의 연구는 商的 유통 연구로 한국의 3대 가전제품 메이커를 대상으로 메이커의 판매경로, 판매사업소의 배치와 管轄지역, 관할지역의 시장규모와 이동효율성, 대리점의 분포와 그 형성요인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규모 가전메이커의 판매사업소의 배치와 관할지역의 설정, 대리점의 분포는 도시의 階層성과 수요량, 영업활동의 효율성에 바탕을 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밝혔다. 또 1989년 자동차의 商的·物的유통에 관한 연구는 한국 3대 자동차 메이커를 대상으로 新車와 中古車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新車 판매사업소의 배치와 관할지역, 관할지역의 경계 및 관할지역의 시장규모, 물적 유통시설의 분포와 공급지역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한국 자동차의 지역적 유통체계는 상거래

70) 韓柱成, 1974, “사과의 流通에 關한 地理學的 研究”,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論文(未刊行).

韓柱成, 1985, “사과 流動의 空間的 形態”, 竹坡洪淳完教授 華甲記念論文集, pp. 311-324.

71) 邢基柱, 1976, “柑橘生産 및 流通에 關한 現況과 問題點”, 應用地理, 第1卷, 第2號, pp. 4-21.

72) 韓柱成, 1984, “地域間 쌀 流動의 空間的 形態”, 地理學, 第29號, pp. 37-47.

73) 韓柱成, 1985, “시멘트 流通의 地域構造”, 地理學, 第31號, pp. 1-15.

韓柱成, 1988, “韓國における石油製品流通の空間的形態”, 東北地理, 第40卷, pp. 15-30.

韓柱成, 1988, “韓國における家電製品販賣網の空間組織”, 經濟地理學年報, 第34卷, pp. 145-157.

韓柱成, 1989, “韓國における自動車の地域的流通體系”, 經濟地理學年報, 第35卷, pp. 110-129

유통의 경우 전국을 階層的으로 세분해서 판매 공간조직을 형성하고 있으며, 물적유통의 공간조직은 單層계층이나 공급지역은 광역적이어서 공급지역 속에 판매사업소와 그들 관할지역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을 밝혔다.

### 7) 소비자 행동에 관한 연구

소매활동과 관계있는 소비자 행동에 관한 최초의 연구는 崔雲植<sup>74)</sup>에 의해 행해졌다. 그는 소비자의 성향과 시장입지와와의 관계, 소비자 流動性向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등을 파악할 목적으로 서울시 16개 중학교 학부모와 480명의 소비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하였다. 그 결과, 시장결정의 요인은 소득수준, 교육정도, 연령, 직업 등 사회계층의 인자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고 하였다. 또 시장의 구매활동에 있어 거리의 영향을 받으며, 구입상품에 따라 시장과 지역선택이 다르다. 또 구입상품에 따라 선택시장이 다르며, 소득에 따라 시장방문 빈도가 다르다는 점을 밝혔다. 다음으로 朴奎澤의 연구<sup>75)</sup>는 대구시 주변 慶山邑의 245가구를 대상으로 소비자의 속성과 便宜財, 選買·專門財의 구매행위를 파악한 결과, 편의재는 경산읍에서 구입하나, 選買·專門財의 구매행위는 부인의 연령과 학력, 소득수준에 의해 구매행동이 다르게 나타난다고 지적하고 있다. 즉, 연령이 낮으며 학력·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은 대구시에서 상품을 구입하는 비율이 더 높다. 이 연구는 경산읍의 상업환경, 상품의 질적수준이 먼저 파악되어야 한다고 본다. 한편 대구시의 중·서·수성구 국민학교 4학년 학부모형의 구매행동을 연구한 鄭香蘭<sup>76)</sup>은 상품의 특성, 구매거리, 거주지 속성 등을 고려한 소비자의 사회·경제적 속성을 지표로 하여 구매행위를 연구하였다. 그 결과, 소비자는 상품구매에 있어 근거리

이동을 하며 高次財일수록 상업지 선택의 폭이 다양하고 이동거리도 멀다는 점을 밝혔다. 또 소비자의 학력, 소득, 거주기간, 직업 등의 요인이 결합되어 소비자의 공간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데 高次財일수록 이들 요인의 영향력이 증대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도심과 접근도가 높은 中區의 경우 屬性差에 따른 소비자의 공간적 행동의 차가 다른 區보다 적다는 점을 밝혔다. 다음으로 金美花의 연구<sup>77)</sup>는 대구시 중학교 학부모의 시장선택의 경향성을 소비자의 태대적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 소비자의 의사결정 과정의 일반모델이 소비자의 시장 선택행위 분석에도 적용될 수 있고, 소비자의 시장선택을 소비자의 시장선호에서 이탈시키는 중요한 조건은 시장정보와 소득이며, 시장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거리이란 점을 밝히고 있다.

### 8) 역사·문화지리적 연구

역사·문화지리적 측면에서 상업·유통지리학을 연구한 경우를 보면, 먼저 文希英의 연구<sup>78)</sup>를 들 수 있다. 그는 조선시대 서울의 상업지역 성립과정과 발달과정을 都城內와 都城 주변으로 나누어 상업지역의 기능과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당시의 상업취락이 오늘날 서울 발달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도시화의 영향으로 두 상업지역의 연결이 이룩되어 도시발달에 상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또 조선시대 安城場을 연구한 曹榮佐<sup>79)</sup>는 18세기 말부터 19세기까지 安城場의 발달배경과 당시 주요 거래품목 및 안성襍負商의 활동범위를 복원하고, 안성장의 기능적 특색을 고찰하였다. 그 결과, 안성장은 교통, 상업자본으로 급성장하였으며, 시장권은 보부상에 의해 이룩되었다. 또 시장의 기능은 물자의 교환, 매매, 客主의 활동이 활발하

74) 崔雲植, 1972, “消費者的 購買行爲에 關한 研究”, 地理學, 第7號, pp. 40-52.

75) 朴奎澤, 1984, “大都市 近郊地域 消費者的 購買行爲”, 慶北大學校 大學院 碩士論文(未刊行).

76) 鄭香蘭, 1986, “消費者的 空間行爲”, 曉星女子大學校 大學院 碩士論文(未刊行).

77) 金美花, 1989, “消費者的 市場選擇에 關한 研究: 大邱市の 境遇”, 慶北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論文(未刊行).

78) 文希英, 1984, “朝鮮時代 서울의 商業地域”, 高麗大學校 教育大學院 碩士論文(未刊行).

79) 曹榮佐, 1987, “朝鮮時代 安城場에 關한 歷史地理的 考察”, 梨花女子大學校 大學院 碩士論文(未刊行).

表1. 한국의 商業·流通地理學 관계 논문의 발표상황(1966~1989년)

구분	이론 연구	流通機關	流通施設			商業 地域	都·小賣業	상품별 流通	소비자  행동	역사·문화  지리	계
			定期市	常設市	商店街						
1966~1970년			2		1			1			4
1971~1975년			3		3		1	1	1		9
1976~1980년				2	3		1	1			7
1981~1985년	2	3	15	3	6	2	2	3	1	1	38
1986~1989년		1	4	1	6	1		3	2	2	20
계	2	4	24	6	19	3	4	9	4	3	78

여 종합적인 상업기능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開港과 더불어 개항장 시장의 확대와 교통의 변혁의 영향으로 20세기초에 쇠퇴하기 시작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마지막으로 楊普景의 연구<sup>80)</sup>는 조선후기의 상업중심지의 분포와 입지를 고찰하고 경상도지역을 대상으로 정치·군사권의 변화에 따른 상업세력권을 유추하였다. 그 결과, 그는 조선시대의 상업중심지는 정치·군사·행정의 기능을 가진 중심지와 일치한다고 주장하고 대도시와 浦口의 상업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경상도 상업지역의 발달은 인구의 증가와 大邑세력권의 변화(界首官, 鎭管制), 교통로의 발달에 의해 상업발달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그러나 본인도 지적한 바와 같이 그의 연구가 상업적 기능이나 상품유통의 직접적인 증거를 연구에 제시하지 못하였다.

### 5. 韓國 商業·流通地理學의 問題点과 課題

이상, 한국에 있어서 1966년부터 1989년까지의 상업·유통지리학 관계의 연구성과를 시기별·내용별로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1) 상업·유통지리학의 연구성과가 24년간 78편 발표되었으나 이들 논문 중 58편이 1981년 이후의 것이며, 또 63%가 유통시설에 관한 연구이고, 이 중 定期市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다. 이는 한국의 상업·유통지리학의 연구가 극히 최근에 와서 활발하게 되었고, 또 상업활동에 있어 정기시의 중요성이 내재되어 있다는 점을 암시해주는 것이다. 경제발달과 더불어 선진국은 서비스 경제화가 진전되고 있는 데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발달에 따른 연구분야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과제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① 生産財·消費財의 유통상의 지역적 結合관계가 상품유형별로 그 流通經路, 그 과정에 개재된 유통담당자의 기능 등이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역적 結合관계, 지배관계와 그 유통메카니즘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② 농수산물 등의 1차產品의 集荷·分配기능과 그 유통의 지역적 검토가 또한 중요한 과제이다.

③ 각종 유통기능이 도시에 집적함에 따라 配送센터, 창고, 트럭터미널 등의 유통시설 및 그 관련시설의 집적지역에 대한 그들 기능과 物資流動과의 관련성을 연구해야 할 것이다.

④ 도시에 메이커의 판매사업소 등의 도매업이 집적함에 따라 그들의 입지와 구매·판매지역에 의한 지역간 結合관계를 분석해야 한다.

80) 楊普景, 1987, “朝鮮後期 商業發達과 地域構造의 變化”, 地理學論叢, 第14號, pp. 141-164.

⑤ 도시내에 소매시설인 大規模店의 등장에 따른 그들의 지역적 展開과정과 그에 따른 소매상점가의 기능변화 등 유통말단부의 변화와 소매상권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⑥ 유통센터 등의 유통기능의 지역적 배치에 대한 流通體系의 計劃化로 인한 지역구조의 변화나 지역체계의 再編成에 대한 연구가 행해져야 할 것이다.

(2) 상업·유통의 발달에 따른 관련자료의 개

발이 필요하다. 개인적으로 수집이 불가능한 각종 통계자료를 개발하여 상업·유통지리학 발달에 공헌해야 할 것이다.

(3) 상업·유통지리학의 체계의 기초확립이 필요하다. 특히, 한국의 경우 종래의 연구성과를 보면 답습적인 연구가 많아 금후의 연구는 문제의식을 갖고 모델·이론화 추구를 위해 더욱 힘을 써야 할 것이다.

# Review and Perspectives on the Study of Geography of Commerce & Distribution

Ju-Seong Han\*

## Summary

The number of papers in geography of commerce & distribution was 78 from 1966, when geography of commerce & distribution had begun to be studied in the Korea, to 1989.

In this paper, I aims to review the development of geography of commerce & distribution studied in Korea and to search for a future guideline of geography of commerce & distribution in this country. Table 1 shows the number of papers in studies of geography of commerce & distribution published between 1966 and 1989 in units of five years. There is an increasing trend in number of papers published, the peak year is 1981-1985; 38 papers on the studies of geography of commerce & distribution were published at that period. The categories of empirical studies are theoretical approach, distribution institutions, distribution facilities, commercial region, wholesaling and retailing, distribution of each goods, consumer behaviour, and commerce & distribution phenomena in historical and cultural geography. Among categories of empirical studies, the number of papers on distribution facilities consists of 62.8% of all empirical studies.

The following three points seem to be most important in a discussion of the studies of geography of commerce & distribution today in Korea.

(1) The number of papers on distribution facilities consists of 62.8% of all empirical studies. The studies on periodic market of

studies on distribution facilities is the most many, as a result the study of this field shows the importance in the commercial activities in Korea. Developed countries have advanced the development of service industry with economic growth, so scope of commerce & distribution studies should be expand with economic growth in Korea. As following research themes of geography of commerce & distribution should be accomplished. ① It should be examined regional connection of product goods and consumer goods, because the point of difference exists on the distribution channels of types of goods, the functions of charger of commerce & distribution intervening its processes in product goods and consumer goods, and it should be examined their regional connection and the mechanism of commerce & distribution. ② Also it is important theme to examine the function of collection and distribution of the products of primary industry and the regional analysis of commerce & distribution. ③ According to agglomerate each distribution function in city, it should be studied commerce & distribution facilities of physical distribution center, warehouse, truck terminal etc. and its related to facilities, and should be studied the relation of these functions and the commodity flow. ④ It should be analysed the regional connection of the sale offices location and purchasing area and selling area according to wholesale's agglomeration of sale offices of makers in city. ⑤ It should be researched the change of tip part of commerce & distribution for changes of func-

---

\* Associate Professor, Dept. of Geogr., College of Education, Chungbuk National Univ.



tion of retailing shopping street, the change of retailing trade area according to entrance of big shopping center, and their multi-regional revolutionary processes. ⑥ It should be studied the change of regional structures or of regional systems based on distribution system planning for the location of distribution function in the distribution center.

(2) In order to study of commerce & distribution about the fields, statistical data should be developed with development of commerce &

distribution, because it is impossible for individual to collect the data about commerce & distribution.

**(3) The establishment of the systems of geography of commerce & distribution is necessary fundamentally.** The papers following the former study are plenty existed especially in Korea, henceforth geography of commerce & distribution studies should be researched to grasp the problem points, and modelling and theoretical approach should be pursued.